

## ECB, 24.3월 통화정책회의 결정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

1

### 금융시장 반응

#### 24.3월 ECB 통화정책회의 주요 내용

- ◆ (정책결정 및 전망) ① 정책금리 **동결**(수신금리 4.00%) ② **물가전망**을 **하향**(24년 2.7% → 2.3%, 25년 2.1% → 2.0%)하고, **성장전망**은 24년 하향(0.8% → 0.6%), 26년 상향(1.5% → 1.6%) **조정**
- ◆ (기자간담회) ① 정책위원 간 **금리인하 논의**는 없었음 ② 최근 지표들은 **물가둔화세 지속성**에 대한 **충분한 확신**을 **제공**하지 **않음** ③ 임금상승률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**대내 물가압력**은 여전히 **높음**

- **독일 국채금리(10년물)**는 정책결정문상 금년도 물가 및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하락하다 Lagarde 총재의 신중한 정책기조 견지로 **하락폭이 축소**(2.31%, 전일대비 -2bp)되고 **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**는 **축소**(131bp, -1bp)
- **유로화 환율(US\$/€)**은 향후 ECB의 금리인하 속도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등으로 **상승**(1.0939, 0.37%)하였으며, **주가(Stoxx 50)**는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지속 등으로 **상승**(4,974, +1.19%, 런던 시각 17:00시 기준)

독일 국채금리(10년물) 및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<sup>1)</sup>



유로화 환율 및 주가(Stoxx50)



주 : 1)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- 독일 국채 10년물  
 자료 : 블룸버그

□ 시장참가자들은 **올해 성장 및 물가 전망의 하향조정**이 완화적이었으나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**Lagarde 총재의 신중한 입장**을 고려하면 정책결정이 **당초 예상**에서 전반적으로 **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**으로 평가

- **Headline 물가**뿐만 아니라 **근원물가** 또한 중기적으로 **정책목표(2%)에 도달**할 것이라는 전망결과는 ECB가 물가안정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나(Natwest)

최근 발표된 **경직적인 대내 물가지표\***가 금번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, 이는 향후 물가경로 및 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**불확실성**이 내재되어 있음을 방증(J.P.Morgan)

\* 24.2월 유로지역의 서비스 물가상승률(3.9%)은 전체 물가상승률(2.6%)을 크게 상회하며, 전월(4.0%) 대비 하락폭도 0.1%p에 그침

- 또한 Lagarde 총재는 최근 물가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리인하를 단행할 정도로 **충분한 확신**을 갖고 있지 않으며,

임금, 기업이익 등 **추가적인 데이터**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시장의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를 조절하려는 모습(BNP Paribas)

- 한편, 금년중 **성장 전망치**를 하향 조정하고 대내외 여건 악화 등에 따른 **하방리스크**가 추가적으로 강조된 점은 완화적으로 평가(Bloomberg)

□ 대다수 투자은행과 시장참가자들은 금년 **6월 정책금리 인하**와 함께 **금년중 100bp 내외의 금리인하**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\*

\* 금일 선도금리시장에서는 6월 첫 금리인하(25bp) 가능성을 92% 반영하고 있으며 금년중 총 97bp의 금리인하를 반영

- 6월중 물가둔화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Lagarde 총재의 언급은 **4월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\***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(RBC)

\* 금일 기자간담회 이후 선도금리시장에 반영된 4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14%로 정책결정문 발표 직전(20%)보다 축소